

看護理論과 研究方法

서울대 보건대학원

李 善 子

看護理論을 定立하기 爲한 努力은 世界的인 추세라고 하겠다.

이런 學問이든 시간에 關心을 갖은 分野에 對해서 繼續하여 研究를 하면서 그 分野에 對한 資料와 知識을 정리하고 體系化시킴으로서 事實을 證明하고 理論을 開發시켜 나간다고 하겠다. 看護學의 경우도 學問的인 體系化를 하기 爲해서는 他學問에서와 마찬가지로의 接近方法을 써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看護理論을 定立시키기 爲한 努力이란 看護研究를 通하여 資料의 수집과 體系化로서 이루어질 수 있겠으며, 看護研究란 科學的인 研究方法에 依한 研究이어야만 하겠다. 따라서 本論題에서는 科學의 特性과 科學的인 研究方法를 살펴봄으로써 看護研究가 어떻게 遂行되어야 하고 나아가 看護理論 發達과 開發에 기여할 수 있나를 檢討해 보고자 합니다.

科學이란 自然現象과 人間의 行動이나 生活에 對하여 眞實된 事實을 포괄적으로 理解하고 推定하기 爲한 知識培養 活動이기 때문에 科學은 繼續的이고 創造的이고 蓄積的인 學問活動 過程을 밟아야 한다. 그래서 科學은 客觀的인 方法과 依定的인 概念을 活用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科學의 特性을 살펴 보면,

첫째로 科學은 合理的이다(Science is Rational). 이 말의 뜻은 科學은 理由를 캐내기 爲해서는 合理的인 說明이 可能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科學은 一般的인 常識과 區分된다. 科學者는 理由를 論理的으로 究明하기 爲해서 推論的인 演繹法(Deduction)을 使用하게 되고 이때에 假說(Hypotheses)을 說定하여 檢証하는 方法을 쓰는 것이다.

둘째로 科學은 經驗을 基礎로 한다(Science is empirical). 科學者는 實務에서 經驗한 事實을 믿고 그것을 바탕으로 知識을 쌓아간다. 그래서 이러한 方法의 道統로서 歸納推理法(Inductive Logic)을 使用하여 原理와 眞理를 究明하기 爲한 學問的인 體系化를 한다. 즉 經驗에서 確認된 事實(Facts)을 基礎로 하여 法則을 發見하고 假說을 세워 整理하고 나아가 學說(Theory)을 發展시키는 方法인 것이다.

셋째로 科學은 客觀的이다(Science is Objective). 客觀的이란 主觀的이다라는 말의 反對로서, 科學的인 發見이나 研究結果의 所見은 公開될 수 있어야 하고, 公開되었을 때에 다른 사람이 모두 같은 方法으로 研究하였을 때 같은 結果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넷째로 科學은 體系的이다(Science is Systematic). 體系的으로 될 때까지의 過程은 試行錯誤法(Trial and Error)의 方法을 거치게 된다. 해보아서 안되면 다시 해보면서 고치고 體系化시키는 것이다. 이때에 試行錯誤는 偶然發生的이기 보다는 事前에 計劃된 試行인 것으로 假說에서 推論한 方法을 시도해 보는 것이다. 科學의 特性이 體系的인 것인데 非科學的인 것에도 體系는 있다는 뜻을 알아야겠다. 例로 大學의 學校 案内書도 體系的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 內容은 科學은 아닌 것이다. 體系化가 되어 있다고 해서 모두가 科學的인 것은 아니다.

다섯째로 科學은 實檢的이다(Science is Experimental). 科學은 實驗的인 方法을 使用하는데 이때에 觀察되어 지는 條件을 規定짓고 實驗을 한다. 實驗條件을 規定지을 때 實驗者가(科學者) 세운 가정에 따라서 狀態를 統制하게 되고, 이러한 狀態下에서의 變化現象을 觀察하는 것이다. 그래서 實驗條件은 人爲的인 경우가 많다. 實驗的인 方法에서는 주어진 條件下에서 變因關係의 變數가 相互 어떻게 變化하는가를 觀察하기 때문에 科學者는 이때에 ① 從屬變數(Dependent Variable) ② 獨立變數(Independent Variable) ③ 常數(Constant Variable)의 關係를 規定하고 觀察하는 것이다.

여섯째, 科學은 數量的이다(Science is Quantitative-Counts and Meaure). 科學은 數量的이기 때문에 計算하고 測定하는 것이다. 自然現象의 說明이나 人間에 對한 說明을 하기 위한 研究結果는 具體的인 計算이나 測定한 것을 根據로 表示하는 것이다. 人體의 體溫이 있다고만 하지 않고 體溫의 狀態를 溫度計로 測定하고 그리하여 大多數의 많은 사람의 正常狀

態의 體溫이 37°C 程度이나 熱이 있다고 表示할 수 있는 狀態는 37°C에서 1°C以上 더높은 38°C 부터라든지 하는 式의 表現이 科學的인 表現方法인 것이다. “몸이 펄펄 끓으면서 앓았습니다”라는 表現은 科學的인 測定結果를 갖고 客觀的인 狀態의 表現이 못되는 것이다. 따라서 科學者가 研究을 할 때에 計算과 測定은 正確해야 하고 結果의 解釋 또한 合理的이어야 하기 때문에 妥當性(Validity) 과 信賴度(Reliability)가 問題되고 研究設計(Research Design)에서 標本選定(Sampling)이 問題되는 것이다. 科學의 目的이 自然現象이나 人間의 問題를 正確히 理解하고 說明하기 爲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表現하면 理致를 깨내고 原理를 파악하여 眞理를 찾아 내어 이것을 體系的으로 合理的으로 說明할 수 있는 理論인 學說을 내세우는 것에 있다면, 自然現象의 觀察結果를 計算하고 測定하는 過程에서 잘못이 있거나 不正確한 觀測으로 研究된 것은 研究結果의 쓸모가 없어지는 것이 된다.

일곱째, 科學은 自己橋正的이다 (Science is Self-

Corrective). 科學의 自己橋正的이란 科學的인 研究結果는 他人에 依해서 잘못된 것이 지적되어지고 비판되어 橋正되어질 수 있으며 本人研究者 自身도 繼續하여 研究結果를 補完하여 나감으로서 새로운 學說의 發達과 새로운 方法의 導入의 餘地가 있는 것이다. 以上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科學은 일곱가지의 特性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나, 이 모두가 絶對的인 必須要件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看護研究에 있어서 科學的인 研究方法를 써서 研究를 하여야겠으며, 研究結果를 점차적으로 體系化시키고 整理하여 看護學에서도 學說을 開發시키고 나아가 看護理論의 定立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看護理論은 어느 看護學者 한 사람의 業績으로 이룩될 수 있기 보다는 여러 사람의 훌륭한 看護研究 結果에 依하여만이 學問的인 융화와 合成 段階를 거친 후 이룩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보다 많은 獨創的이고 意慾的인 훌륭한 研究가 進行되길 期待하면서 本論題를 마칩니다.